



산업자원부 고정책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님, 한국전기안전공사 박근식 기술사업이사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원일식 이사장님, 전력전자학회 최귀하 회장님과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희평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100만 전력기술인의 구심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축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전력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전력기술인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 자원의 약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및 핸드폰 등 IT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가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전기를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후발국가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자원 가격의 폭등과 고유가 행진 등으로 우리나

祝辭

라 경제의 전망은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서는 세계 1위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자격 즉 기술개발, 정보기술습득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전력기술인 여러분도 时时刻刻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100만 전력기술인 여러분!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33년의 긴 역사를 가진 대한전기 기사협회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44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기인의 유일한 법정단체입니다.

전력기술인협회는 그동안 전기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전력기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협회 자체사업으로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전력기술진흥대회」 개최와 전력산업의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는 협회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들도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협력하여 국가전력산업발전에 더욱 기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전력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8일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권오형